

2018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월간 리포트 모음

활동권역 : 이탈리아

제 출 자 : 안 소 연

번호	구분	내용
1	현지 동향	이탈리아 문화부, 문화분야에 재정 및 채용 지원 확대
2		매월 첫주 일요일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정책 중단키로
3		‘문화 보너스’ 지원 사업, 올해는 그대로 유지하나 2019년 개편 예고
4		문화부, 박물관·미술관과 대중 간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만화책 출판사와 협업
5		이탈리아 문화부, 25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오페라극장 라 스칼라 공연 2유로에 제공키로
6		한국 ‘한지·천연염색’, 이탈리아·바티칸 훼손 문화재 복원한다
7		한·이탈리아 정상 “문화적 유대 및 인적 교류 강화”
8		2019 유럽 문화 수도, 이탈리아 마테라 (Matera)
9		이탈리아 문화부, 2019년에 국립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20일로 늘리기로
10		문화부, 18세-25세 청소년들에게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2유로에 제공키로
11	기관 및 단체	스튜디오 플러드 (Studio Fludd)
12		스튜디오 필라 (Studio Pilar)
13		아지엔다 스페찰레 팔라엑스포 (Azienda Speciale Palaexpo)
14		폰도 암비엔테 이탈리아노 (FAI, Fondo Ambiente Italiano)
15		프리치 프리치 (Frizzi Frizzi)
16		제로 (ZERO)
17		ELSE Edizioni (엘세 에디치오니)

18	공간	엑스 도가나 (Ex Dogana)
19		팔라초 델레 에스포시치오니 (Palazzo delle Esposizioni)
20		마타토이오 (Mattatoio)
21		첸토스토리에 (Centostorie)
22		로마현대미술관 (MACRO, Museo di Arte Contemporanea)
23		팔라초 메를루아나 (Palazzo Merluana)
24	축제 및 행사	리졸라 델 치네마 (L'isola del cinema)
25		비데오치타 (Videocittà)
26		오 더 프로젝트 (O The Project)
27		로마에우로파 페스티벌 (Romaeuropa Festival)
28		피우 리브리 피우 리베리 (Più libri Più liberi)
29	인물	크리스티아노 레오네 (Cristiano Leone)

I. 현지 동향			
유형	정책 및 소식	장르	문화예술
관련링크	http://www.ansa.it/english/news/lifestyle/arts/2018/07/10/more-cash-for-culture-in-budget-bonisoli-2_ee868b54-fe28-4cea-9a9b-b0da74f1682c.html http://www.ansa.it/english/newswire/english_service/2018/07/11/ansa-cash-personnel-to-be-invested-in-culture-bonisoli_0c0e887f-3cf9-4491-9e17-a2f0809c2987.html		

이탈리아 문화부, 문화분야에 재정 및 채용 지원 확대

알베르토 보니솔리 (Alberto Bonisoli) 신임 문화부 장관은 오성운동/동맹 (Movimento 5 Stelle/Lega) 정부의 첫 예산안에 문화분야 재정 지원 확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변화가 필요하다. 이전의 문화분야 지원 삭감은 끝났다"라며 의회에서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문화부 계획안에는 문화분야 자원의 증가가 전제되어 있다고 말했다.

보니솔리는 또한 하원에서 마련된 질의응답 시간에 당국의 문화 기관에 6000명 규모의 인력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그가 "야심찬" 계획안이라고 설명한 성명에는 모든 장르의 문화에 대한 지원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었으며, 이는 채용, 도시 외곽 지역, 가시성, 청년 중심 프로그램 및 정부-민간 기관 간 관계 재정립에 대한 지원을 포괄한다. 야당은 오성운동의 당원인 보니솔리가 구체적인 수치나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으나, 보니솔리는 그의 "문화혁명"에 대한 포부를 자신있게 드러냈다.

보니솔리는 문화분야의 재정 증액은 새 정부가 가장 중점에 두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하며, 문화부의 신규채용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를 위한 재정의 중요성과 실력있는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한 정규직 공무원 선발시험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보니솔리는 "문화는 사회 발전 및 문명 간의 거리를 좁히는 데에 기여하며, 역사에 대한 인식을 비롯한 현재적 경험을 구축"한다고 말했다. 이에 좌파 정당 자유와평등(LeU) 소속 니콜라 프란토이안니 (Nicola Frantoianni) 의원은 현 정부의 정책은, 특히 이민자 관련해 추진하고 있는 접근법, 문명 간 교량 역할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였다.

유형	정책 및 소식	장르	문화예술
관련링크	http://www.ansa.it/english/news/lifestyle/arts/2018/07/31/once-a-month-free-museum-access-to-end_b31a4556-3298-4309-83e7-f7a6f9794a5c.html https://www.archyworldys.com/bonisoli-abolish-free-sundays-at-the-museum-and-it-is-controversy/ https://www.wantedinrome.com/news/italy-to-scrap-monthly-free-entry-to-museums.html		

매월 첫주 일요일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정책 중단키로

알베르토 보니솔리(Alberto Bonisoli) 문화부 장관은 매월 첫째 주 일요일에 실시하고 있는 국립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의 날 정책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31일 국립 나폴리 도서관을 방문하여 이 같은 뜻을 밝힌 보니솔리 장관은 "무료관람의 날은 초기 홍보효과 차원에서는 좋았지만 이대로 지속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을 것이다. 이번 여름에는 기존 그대로 실시할 예정이지만 그 이후에는 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무료관람의 날 운영 여부의 선택권을 기관에 넘기겠다는 입장이다. "무료관람의 날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면 좋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폼페이 유적지를 예로 들었다. 방문객이 많지 않은 11월에는 첫주 일요일 또는 매주 일요일에 무료 개방을 해도 상관없겠지만 수천 명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8월 같은 경우에 정부에 의한 강제적인 무료 개방은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보니솔리는 이미 의회에서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의 날 폐지에 대한 뜻을 밝힌 바 있으나 이번에는 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의 날은 그의 전임자 다리오 프란체스키니(Dario Franceschini)가 심혈을 기울여 실현한 주요 정책 중 하나로, 문화기관 관람객 수가 크게 늘어나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정책은 2014년부터 밀라노 브레라 미술관(Pinacoteca di Brera), 로마 콜로세움 고고학공원(Parco archeologico del Colosseo), 카라칼라 욕장(Terme di Caracalla),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Gallerie degli Uffizi), 폼페이 등 전국 480여개의 박물관, 미술관, 유적지를 시민들이 매월 첫 번째 일요일에 무료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보니솔리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프란체스키니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지난 몇 달 간 내가 4년간 이끌어왔던 문화부 그리고 나의 후임자의 결정들에 말을 아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무료관람의 날은 제 개인의 관심사가 아니라 2014년 여름부터 천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시킨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무료관람의 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전국 곳곳을 다니게 되었고, 자녀 또는 조카들을 처음으로 박물관으로 데려갈 수 있게 해준 정책인데, 왜 폐지시키려 하시나요, 보니솔리 장관님?” 그는 또한 “정치적인 색을 배제해야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문화분야와 이탈리아 국민들이 정치적 이견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보니솔리 장관의 결정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문화예술분야의 재정 및 채용 지원 확대는 반가운 소식이나,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과 극우정당 ‘동맹’이 손잡고 출범시킨 포퓰리즘 연정이 문화예술계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이다.

유형	정책	장르	문화예술
관련링크	http://www.beniculturali.it/mibac/export/MiBAC/sito-MiBAC/Contenuti/Avvisi/visualizza_asset.html_391150129.html http://www.ansa.it/sito/notizie/politica/2018/07/24/bonus-cultura-bonisolli-oggi-in-cdm-ok-per-2018-poi-cambio_920c7db1-70de-419a-be31-deb94acaf65d.html http://www.clessidraquotidiano.it/2018/07/12/bonus-cultura-bonisolli/ https://www.18app.italia.it/		

‘문화 보너스’ 지원 사업, 올해는 그대로 유지하나 2019년 개편 예고

‘문화 보너스’ 프로그램을 올해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시행령이 지난 7월 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알베르토 보니솔리 (Alberto Bonisolli) 문화부 장관은 2019년부터 대폭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보니솔리 장관이 이 사업을 비판하며, 젊은이들에게 문화를 떠먹여주기 보다는 문화에 갈증을 느끼게 하여 스스로 신발 한 켤레 값이라도 아껴서 문화생활을 하게끔 하는 것이 낫다고 말하며 예산을 다른 곳에 쓰는 편이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 같은 발언은 비판 여론을 확산시켰다. 보니솔리 장관은 부정적인 목소리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이는데, 증폭되었던 사업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었지만 향후 사업이 어떻게 바뀔지는 미지수이다.

※'문화 보너스'란?

'18 App' (18앱) 이라고도 알려진 '문화 보너스' (Bonus Cultura)는 문화·예술 분야 지원·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이전 정부가 젊은이들에게 문화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문화 산업 활성화 명분 아래 2015년에 추진, 2016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당해에 만 18세를 맞는 청년들에게 문화생활에 쓸 수 있도록 1인당 500유로(약 64만원)를 지원해왔다. 온라인 애플리케이션(18앱) 형태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극장, 박물관, 국립공원 입장권 또는 멤버십, 영화, 공연, 축제 입장·관람, 도서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CD, DVD 및 온라인 음원 구입과 음악, 무용, 연기, 언어 강좌 수강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탈리아 시민권자 뿐만 아니라 정식 체류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주어지며 2017년부터는 교사들에게도 '직업 전문성 개발'을 위해 개인당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고 있다. 이 정책의 수혜자는 매년 58만명 가량 되며, 약 78%의 지원비가 도서 구입, 11-12%가 음악 공연 입장권, 8-9%가 영화 관람권 그리고 1%가 연극 및 무용 등에 사용되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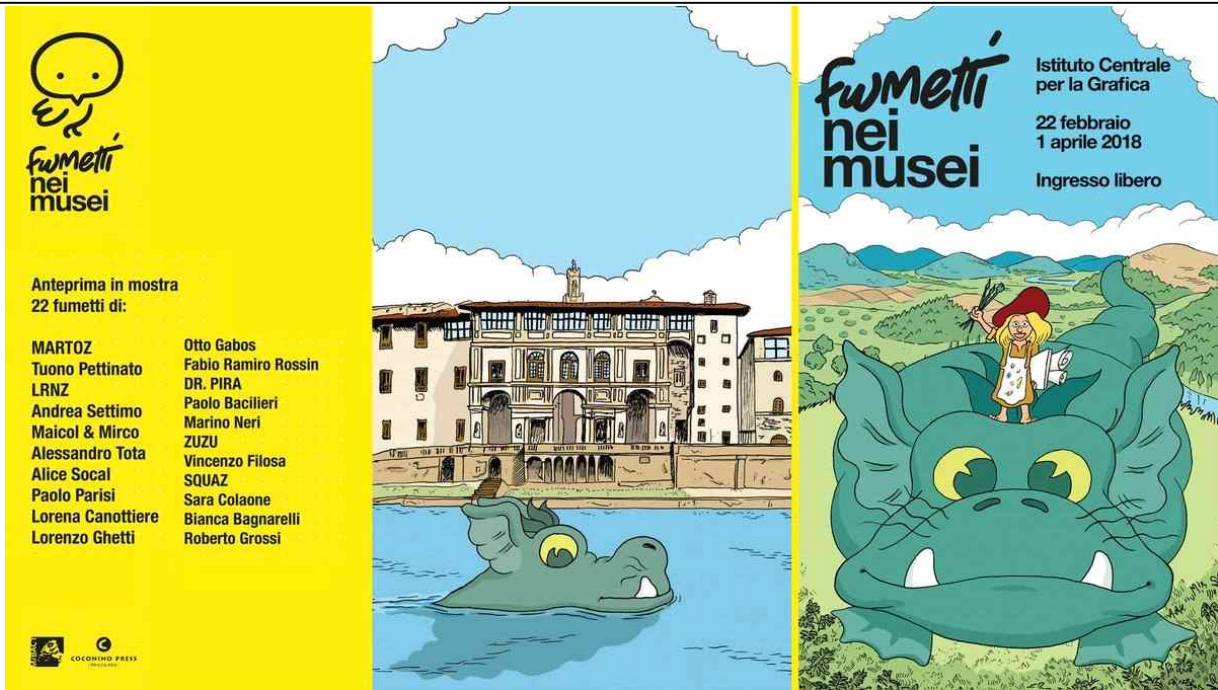
유형	뉴스	장르	문화예술
관련링크	www.beniculturali.it/fumettineimusei https://www.facebook.com/fumettineimusei/		

문화부, 박물관·미술관과 대중 간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만화책 출판사와 협업

올해 초 문화부는 대중,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만화책 출판사 코코니노-판당고(Coconino-Fandango)와의 협업을 통해 Fumetti nei Musei*를 진행했다. 이탈리아 22개의 주요 박물관·미술관·유적지와 유명 만화가 21명을 연결시켜 각 기관을 배경으로 한 그래픽노블을 제작하게 했다. 기관장과 만화가 간의 만남을 추진시켜 기관 및 컬렉션과 연관된 숨겨진 이야기들을 소개하며 제작에 영감을 불어넣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만화들의 원화를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약 한달 반 동안 로마의 중앙그래픽디자인센터 (L'Istituto Centrale per la Grafica)에서 전시하였으며 이제 9월부터 본격적으로 각 기관의 교육자료로 배포 및 활용될 예정이다.

※Fumetti nei Musei는 영문으로는 Comics in the Museums로 번역이 되며, 한글로는 '만화로 만나는 박물관'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린 관객들이 박물관, 미술관, 및 유적지를 보다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으로 프랑스 루브르박물관(Musée du Louvre)과 오르세 미술관(Musée d'Orsay)에서 진행한 프로젝트와 비슷한 형태이다. 참여기관으로는 보르게세 미술관(Galleria Borghese), 우피치 미술관(Gallerie degli Uffizi), 국립근대미술관(Galleria Nazionale d'Arte Moderna), 브레라 미술관(Pinacoteca di Brera), 폼페이 유적지(Parco Archeologico di Pompei)등이 있다. 제작된 만화는 온라인으로도 즐길 수 있다. 올해를 시작으로 향후 매해마다 새로운 만화 출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8년 2월 22일부터 4월 1일까지 로마에서 진행되었던 원화전시 홍보물
(우피치 미술관과 알레산드로 토타(Alessandro Tota)작가 협업으로 제작된 그래픽노블 표지 이미지)

유형	정책	장르	문화예술
관련링크	http://www.ansa.it/lombardia/notizie/2018/09/18/bonisoli-2-euro-alla-scala-per-under-25_10d8f1f2-a4a5-4f6d-8edd-b9b23e1a3ccc.html		

이탈리아 문화부, 25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오페라극장 라 스칼라 공연 2유로에 제공키로

알베르토 보니솔리 (Alberto Bonisoli) 문화부 장관은 오는 오페라 시즌부터 25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는 밀라노의 오페라극장 라 스칼라(Teatro alla Scala)의 공연을 단돈 2유로에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보니솔리 장관과 알렉산더 페레이라 라 스칼라 극장 예술감독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졌다. 보니솔리 장관은 "이 정책은 문화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문화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젊은 세대를 위한 것이다. 문화가 해결책은 아니지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이 프로젝트는 14개의 다른 오페라 극장에도 제안이 되었으며 그 기관들 모두 참여 의사를 밝혀왔다. 라 스칼라는 15개의 오페라 공연과 7개의 무용 공연 2,200 좌석을 할인된 가격 2유로(약 2,500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유형	뉴스	장르	문화예술
관련링크	http://www.munhw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03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9251324021&code=210100 http://news1.kr/articles/?3435384		

한국 '한지·천연염색', 이탈리아·바티칸 훼손 문화재 복원한다

이탈리아 문화재 복원에 한국 전통 한지가 쓰인다. 로마 카타콤베 벽화 복제화를 복원하는데 한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고대 문서를 복원하는데 한지가 쓰이고 있다.

그동안 이탈리아의 주요 지류 문화재 복원에는 이탈리아 및 여타 국가의 종이가 주로 활용되고 있었으나, 2014년 10월 한국 문화재청과 이탈리아 문화부 간 문화재 분야 협력 MOU 체결을 시작으로, 2016년 12월, 한지 2종에 대한 문화재 복원 재료 적합성 인증을 거치면서 한지에 대한 관심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9월 25일과 26일 양일에 걸쳐 이탈리아 로마 국립기록유산보존복원중앙연구소(Istituto Centrale per il Restauro e la Conservazione del Patrimonio Archivistico e Librario, ICPAL) 한지와 천연염색을 이탈리아 문화재 복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와 워크숍 “색의 신비-동서양의 비교”가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선 양국의 문화재 복원 분야 전문가들이 양국의 지류문화재 복원에 한지를 활용한 사례를 공유하고, 동서양 천연염색을 상호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복원 사례에 있어, ICPAL에서 인증한 한지를 활용하여 복원된 이탈리아 문화재는 800년전 카톨릭의 성인인 성 프란체스코(1182~1226년)의 친필 기도문이 담긴 ‘차르툴라(Chartula), 시칠리아 섬 카타니아 대학에서 17~18세기에 쓰여진 학위를 모은 ‘카타니아 학위집,’ 로마 근교의 그로타페라타 국립국가유물도서관(Biblioteca Statale del Monumento Nazionale di Grottaferrata)에 소장된 ‘에티오피아 자필서적’ 등 총 7점이 있다. 복원에 사용된 한지는 경남 의령군의 신현세 전통한지공방에서 제작된 제품으로, 훼손된 책의 각 페이지와 책등을 연결하는 부분의 보강에 사용돼 책의 원형 보존에 크게 기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교황청 산하 바티칸박물관에서는 최근 로마 카타콤베의 프레스코화를 1800년대 중반에 템페라 기법으로 종이에 복제한 작품인 ‘로마 카타콤베 벽화 복제화’ 37점 가운데 5점을 한지를 이용해 복원하는데 성공했다. 원본 종지와 캔버스 사이에 한지를 넣는 방식으로 복원을 진행하였다. 바티칸박물관은 또한 19세기 말에 그려진 ‘성 루카 아카데미의 콩쿠르 출품 270번 그림’도 자체 검증 절차를 거친 한지를 사용해 복원 했다.



한지를 이용해 복원한 로마 카타콤베 벽화 중 일부 (출처: 바티칸박물관)

ICPAL과 바티칸 박물관은 이외에도 현재 한지로 복원 중인 문화재들이 추가로 있으며 복원이 완료되면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16년 이탈리아 문화재 복원 적합성이 인증된 2종의 한지에 이어 ICPAL에 지역 공방의 다양한 복원용 전통한지 8종에 대해 적합성 인증을 요청 중에 있다. 지속적인 공동연구를 통한 전통한지의 우수성 홍보와 이탈리아를 넘어 유럽 문화유산 복원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ICPAL에서 개최된 “책의 신비-동서양의 비교” 세미나와 워크숍 (출처: 주이탈리아한국문화원)

유형	소식	장르	교류 협력
관련링크	http://www.governo.it/sites/governo.it/files/JointPressStatemen_20181017.pdf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17/0200000000AKR20181017178800001.HTML?input=1195m		

한·이탈리아 정상 “문화적 유대 및 인적 교류 강화”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2018년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이탈리아를 공식 방문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17일 세르지오 마타렐라(Sergio Mattarella)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이후 주세페 콘테(Giuseppe Conte) 총리와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전반적인 양국 관계 및 지역·국제 현안 등 양측 관심 의제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이 지난 134년에 걸쳐 발전시켜 온 동반자 관계와 민주주의, 인권 및 법치주의라는 공통 가치에 기반하여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하였으며, 문화 분야를 포함, 양국 관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다음은 양 정상이 채택한 ‘한·이탈리아 공동언론발표문’의 일부이다.

『양 정상은 양국을 방문하는 상호 국민들의 숫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이탈리아 공식 방문 계기에 양국의 산업, 관광, 인적 교류를 활성화시킬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 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 협정"에 서명하게 된 것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 간 인적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경험 공유 및 우수 사례 교환을 포함하여 현재의 긴밀한 영사협력을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문화교류 협력이 상호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한 공통의 관심사라는 점에서 양국 정부 간 문화공동위원회가 20년 만에 재개된 것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 간 진행 중인 문화 협력의 여러 사례 중 특히 이탈리아 고등보전 복원연구소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간 문화유산 보전 및 복원 분야에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또한, 문화재 복원 분야에서 이탈리아의 리더십을 확인하면서 양 정상은 이탈리아 기록유산 보존복원 중앙연구소와 한국 문화재연구소 간 협력에 기반하여, 한지가 문화유산 복원에 사용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빅데이터 및 IoT 등 ICT 기술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문화재 재난관리 협력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이 분야에서 협력이 더욱 진전되기를 기대하였다.

양 정상은 교육 분야 협력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간 학생 교류 및 대학 협력을 확대하

고, 이탈리아 내 한국어 교육과 한국 내 이탈리아어 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한국 정부 후원 하에 로마 사피엔자 대학교에 한국 자료실이 설치되고, 이탈리아 정부 후원 하에 서울 내 다양한 대학교에서 이탈리아어 강좌가 진행되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유형	소식	장르	교류·협력
관련링크	https://www.matera-basilicata2019.it/en/		

2019 유럽 문화 수도, 이탈리아 마테라 (Matera)

유럽연합은 매년 유럽 대륙의 도시를 선정하여 1년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각종 문화 행사를 전개한다. 2019년의 주인공 도시 중 하나는 이탈리아 마테라이다.

이탈리아 남부 바실리카타 주에 위치한 마테라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도시이기도 하다. 마테라는 내년 유럽 문화 수도의 주인공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데, 1월 19일부터 12월 19일까지 54개의 큰 규모의 문화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2019 마테라-바실리카타 재단(Fondazione Matera-Basilicata 2019)바실리카타 주의 문화협회들이 주축이 되어 행사들을 진행해나갈 예정이며 3,000여명의 시민과 117여명의 작가 및 큐레이터 그리고 100여명의 국제 파트너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전체 프로그램의 80퍼센트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월드 프리미어 프로젝트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유럽 국가 외에도 일본, 아르헨티나, 튀니지, 요르단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한다.

위 기간 동안 매일 최소한 5개의 문화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며, 이는 전시, 라이브 퍼포먼스, 도심 워킹투어, 시민들이 직접 진행하는 토크 등으로 다양하게 채워질 예정이다.

유형	소식	장르	교류·협력
관련링크	http://www.ansa.it/sito/notizie/cultura/2018/11/13/musei-bonisoli-20-giornate-gratuite-nel-2019-9e4cc0c9-3b1f-491e-9e84-83df4e7dae78.html		

이탈리아 문화부, 2019년에 국립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20일로 늘리기로

알베르토 보니솔리(Alberto Bonisoli) 문화부 장관은 2019년에는 국립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의 날을 20회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월 첫째 주 일요일에 실시하고 있는 무료관람의 날을 20일로 늘리고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배분하여 진행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보니솔리 장관은 이 같은 변화는 “정치 선전이 아닌 올바르고 효율적인 운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운영 기준 제시에 있어, 일부 무료관람의 날은 국가차원에서 지정할 것이다. 예를 들어 3월 5일 화요일부터 10일 일요일까지 모든 국립 박물관·미술관을 무료 개방할 것이다. 나머지는 개별 기관 운영에 맡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유형	소식	장르	교류·협력
관련링크	https://www.repubblica.it/robinson/2018/11/13/news/musei_gratis_bonisoli_ufficializza_le_giornate_gratuite_nel_2019_saranno_20_in_tutto_l_anno_-211541467/?refresh_ce		

문화부, 18세-25세 청소년들에게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2유로에 제공키로

알베르토 보니솔리(Alberto Bonisoli) 문화부 장관은 2019년에 18세부터 25세 청소년에게는 국립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을 2유로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니솔리 장관은 문화유적지를 자주 방문하는 것은 젊은 친구들의 배움과 성장 촉진에 도움을 주며, 이 같은 결정은 청소년들이 박물관과 미술관에 자주 가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모든 국립 박물관, 미술관, 유적지는 18세 미만 이탈리아 및 유럽연합국가 시민들에게는 무료이다.

II. 문화예술 디렉토리

기관/단체명	스튜디오 플러드 (Studio Fludd)		
유형	예술 콜렉티브	장르	시각예술
운영주체	Studio Fludd		
소재지	베니스	설립년도	2008년
기관현황	예술가 3인		
홈페이지	http://www.studiofludd.com/		

기관
및
단체

■ 소개

마테오 바라토, 카테리나 가벨리, 사라 마라고토 작가 3인이 2008년에 만나 베니스를 기반으로 활동을 시작한 다원예술그룹이다. 스튜디오 플러드라는 이름은 16세기 영국 신비사상가 로버트 플러드(Robert Fludd)로부터 따왔다. 디자인, 그래픽, 공예, 일러스트레이션, 스타일링, 장식, 컨셉 개발, 창의적 교육, 전시, 이벤트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자체 기획 및 커미션 프로젝트를 해오고 있다.

작가 개개인의 역량을 바탕으로 함께 연구하고 협력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디자인 솔루션을 제시한다. 출판사, 건축사무소, 커뮤니케이션 스튜디오, 잡지사, 디자인 연구소 등 여러 분야의 기관 및 개인들과 다양한 작업을 한다.

■ 구성원

마테오 바라토 (Matteo Baratto)

그래픽 디자이너, 스타일리스트이자 3D 크래프트 전문가
cargocollective.com/matteobaratto

카테리나 가벨리 (Caterina Gabelli)

일러스트레이터 사진 작가
www.caterinagabelli.com

사라 마라고토 (Sara Maragotto)

이미지 메이커이자 비주얼 리서처
www.samaragotto.com



(좌) Topipittori 출판사와 협업한 어린이 책 《L'albero》
 (우) 어린이 장난감 Slow Wood (출처: Studio Fludd 홈페이지)

* TIP : 끝없는 호기심을 추구, 다양한 분야를 탐구하며 혁신적이고 실험적이며 신선한 작업을 하는 콜렉티브이다. 책, 교구, 워크숍 등 어린이 관련 창의적인 프로젝트 또한

돋보인다. 작업 과정 및 참여 프로젝트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스튜디오 플러드의 SNS 채널을 통해 볼 수 있다.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tudiofludd>; 인스타그램: @studiofludd). 작가들의 개인 작업 또한 흥미로우며, 위 개인 홈페이지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관
및
단체

기관/단체명	스튜디오 필라 (Studio Pilar)		
유형	예술 콜렉티브	장르	일러스트레이션
운영주체	스튜디오 필라 문화 협회 (Associazione Culturale Studio Pilar)		
소재지	로마 Via Panfilo Castaldi, 16	설립년도	2011년
기관현황	일러스트레이터 4인		
홈페이지	http://www.studiopilar.it/		

■ 소개

이탈리아 유럽디자인학교(IED, Istituto Europeo di Design) 동문 4인이 함께 모여 설립한 로마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젊은 일러스트레이터 콜렉티브이다. 2011년 10평 남짓한 공간에서 함께 일하기 시작하여, 2015년에 현재의 사무실로 이사하였다. 활기와 젊음이 가득한 테스타초(Testaccio)와 트라스테베레(Trastevere) 지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50평이 넘는 이 곳은 작업실과 더불어 작은 책방 그리고 워크숍, 전시 등 다양한 행사를 운영하는 “문화 협회(Associazione culturale)” 즉, 복합문화공간이다.

스튜디오 필라의 주요 클라이언트로는 이탈리아 우정사업본부(Poste Italiane), 국영방송국(RAI), 아노락(Anorak Magazine), AD(Architectural Digest), 뉴욕 타임스(The New York Times), 월스트리트 저널(The Wall Street Journal), 리졸리(Rizzoli) 등이 있다. 4인의 일러스트레이터는 하나의 팀/콜렉티브로 함께 일을 하는 동시에 각자의 개성을 살린 개인 작업도 꾸준히 한다. 줄리아는 주로 어린이 관련 작업을, 안드레아 M.과 줄리오는 주로 잡지와 신문사와 협업 작업을, 그리고 안드레아 C.는 만화분야 작업을 진행한다.

■ 구성원

줄리오 카스타냐로 (Giulio Castagnaro)

<https://www.giuliocastagnaro.com/>

줄리아 토마이 (Giulia Tomai)

<http://www.giuliatomai.com/>

안드레아 크로폴로스 (Andrea Chronopoulos)

<https://andreachronopoulos.com/>

안드레아 몬지아 (Andrea Mongia)

<http://www.andreamongia.com/>



(좌) <B comics · Backstage> 전시 전경, Studio Pilar, 2016
(우) 워크숍 진행 현장 사진 (출처: Studio Pilar 홈페이지)



(좌) Studio Pilar가 기획 출판한 책 《Cocktails》. 총 4권의 이슈로 이루어진 시리즈로 각 6인의 작가들이 소개하는 칵테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우) 저명한 작가 및 인용문을 소재로 한 책갈피 (출처: Studio Pilar 홈페이지)

* TIP : 스튜디오 필라는 시각 커뮤니케이션, 특히 일러스트레이션, 만화, 독립출판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다양한 전시 및 워크숍 등을 선보이고 있다. 행사 및 이벤트 관련 소식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 수 있다.

기관/단체명	아지엔다 스페찰레 팔라엑스포 (Azienda Speciale Palaexpo)		
유형	비영리	장르	복합
운영주체	자체운영		
소재지	로마 Via Nazionale, 194	설립년도	1998
기관현황	로마 내 3개 문화기관 운영		
홈페이지	https://www.palaexpo.it/		

**기관
및
단체**

■ 소개

로마 시 교육·문화국 산하의 비영리 기관으로 1997년에 팔라초 델레 에스포시치오니 (Palazzo delle Esposizioni), 일명 '전시 궁전'의 운영을 위해 설립되었다. 운영·행정적 자율성을 부여하여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온전히 문화, 특히 시각예술을 위해 설립한 첫 책임운영기관이다.

아지엔다 스페찰레 팔라엑스포는 현재 팔라초 델레 에스포시치오니 뿐만 아니라, 로마 현대미술관(MACRO, Museo di Arte Contemporanea)와 복합문화공간 마타토이오 (Mattatoio)의 다양한 활동 및 사업을 총괄한다. 다양한 전시 및 연계행사(심포지움, 컨퍼런스, 음악 및 영화 프로그램 등)를 활발하게 기획하고 운영하며, 시각예술, 공연예술, 역사, 과학 등 다방면의 분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개의 기관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문화에 대한 통합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로고

* TIP : 로마 시내 주요 문화예술기관을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상당한 자율성을 갖는 기관으로 보인다. 다양한 연령층의 공감을 얻어내기 위해 젊고 친근한 행사들을 기획하고 홍보마케팅 분야에 있어서도 여러 노력들이 시도하는 점이 돋보인다. 복합문화공간 마타토이오에 대한 운영은 2018년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어 팔레엑스포로 인한 새로운 행보가 기대된다.

기관/단체명	폰도 암비엔테 이탈리아노 (FAI, Fondo Ambiente Italiano)		
유형	비영리	장르	문화유산
운영주체	자체운영		
소재지	밀라노 Via Carlo Foldi, 2	설립년도	1975
기관현황	보전·관리하는 문화사적 36곳		
홈페이지	https://www.fondoambiente.it		

■ 소개

이탈리아 환경재단(FAI, Fondo Ambiente Italiano)은 영국에서 시작한 자연보호와 사적 보존을 위한 민간단체 내셔널 트러스트(National Trust)을 모델 삼아 1975년에 설립되었다. 이탈리아의 역사적, 미적, 그리고 자연 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관
및
단체

FAI는 세 가지의 주요 목표는 아래와 같다:

- 현재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해, 이탈리아의 특별한 장소들을 보존·복원 및 관리
- 이탈리아의 역사적, 미적, 자연 유산에 대한 인식 및 이해를 제고하고 향유 장려
- 헌법 제9조(이탈리아 공화국은 문화와 과학 기술 연구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의 자연 및 문화유산을 보호한다)의 실천에 기여

FAI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자산기증과 기부 및 자원봉사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제를 시행하고 있다. 연회비를 내고(1인 개인 기준 약5만원)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은 FAI가 보전·관리하는 문화유산 36곳 무료입장과 더불어 영국, 저지섬, 스코틀랜드, 호주 내셔널트러스트가 관리하는 문화사적 무료입장, FAI 행사 참여, 그리고 FAI와 협약을 맺고 있는 약 1,500개의 문화기관에서 최대 50퍼센트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FAI는 매년 봄과 가을에 "FAI의 날"을 개최하여, 평소에 일반 대중에게 공개가 되지 않는 유적 및 건축물을 그 주말동안 특별히 개방하고 도슨트투어를 함께 제공한다.

또한, 2003년부터는 2년마다 "마음의 장소(I Luoghi di Cuore)" 설문조사, 투표를 진행해오고 있다. 덜 알려져 있거나 잊혀져가고 있던, 하지만 여전히 마음 속에 남아있는, 곳들을 재발견하여 보호, 보전 및 관련 기반을 확충한다.



FAI가 보전·관리하는 사적 중 하나인 밀라노에 위치한 Villa Necchi Campiglio (출처: 안소연)
 *FAI 자원봉사자들의 도슨트투어를 통해서만 내부 관람이 가능하다. 투어는 이탈리아어와 영문으로 제공된다

* TIP : 도시별 지부의 활동이 활발하며 페이스북에서도 개별 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FAI 사적, 행사, 할인 등의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기관/단체명	프리치 프리치 (Frizzi Frizzi)		
유형	온라인 채널	장르	대중문화
운영주체	자체운영		
소재지	볼로냐 Via Francesco Barbieri 11/2	설립년도	2006
기관현황	매달 2,500,000 페이지 이상 구독		
홈페이지	https://www.frizzifrizzi.it		

기관
및
단체

■ 소개

프리치 프리치(Frizzi Frizzi)는 온라인 대중문화 잡지로, 예술, 디자인, 책, 독립 잡지, 패션, 행사 등의 소식을 전한다. 맨 처음에는 짧은 기사들 위주였으나, 현재는 보다 깊이 있는 콘텐츠로, 독자들과 대화하고 소통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주 독자층은 25-45세 사이의 크reative 아트 분야의 종사자들이며 이중에는 일러스트레이터, 사진 작가, 디자이너, 교육자, 학생 등이 있다.

이탈리아의 미술 및 디자인, 출판, 패션, 음식에 대한 흥미로운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곳이다. 프리치 프리치는 이탈리아 온라인 잡지의 성공사례로 뽑히고 있으며, 공동창립자이자 편집장인 시모네 스타르바티(Simone Sbarbati)는 오프라인에서도 강연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출처: Frizzi Frizzi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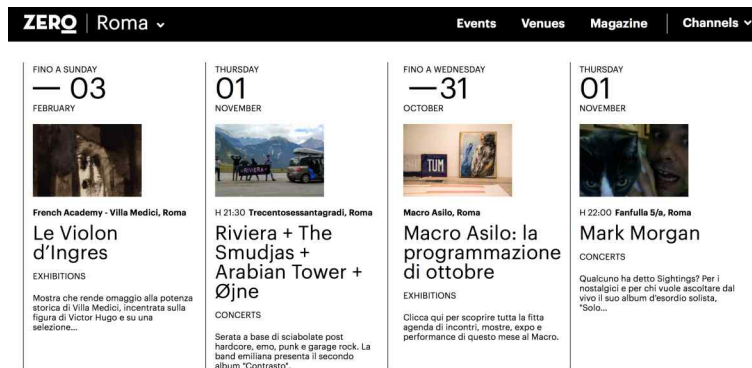
* TIP : 웹사이트 외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의 매체도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다.			
기관/단체명	제로 (ZERO)			
	유형	잡지	장르	
	운영주체	자체운영		
	소재지	밀라노 Via Quaranta, 40	설립년도	1996
	기관현황	이탈리아 5개 도시, 월 2회 간행		
	홈페이지	http://edizionizero.com/ https://zero.eu/ (온라인 잡지)		

기관
및
단체

이탈리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라이프스타일 잡지이다. 20대부터 40대까지 두터운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탈리아 5개의 도시 로마, 밀라노, 토리노, 볼로냐, 나폴리 그리고 터키 이스탄불에서 간행되고 있으며 그 도시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문화행사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온라인 웹사이트에서는 밀라노, 로마, 볼로냐, 토리노, 피렌체, 나폴리 그리고 스위스 취리히의 7개 도시의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걸쳐 정보를 제공한다. 전시, 공연, 밤문화 등 다양한 장르의 행사를 다루며 도시의 문화 공간 및 주변에서 먹거리와 마실거리를 즐길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그 외에도 작가 인터뷰 및 큐레이션이 된 도시 안내 기사 등 콘텐츠가 풍성하다.



행사 소개 화면 (출처: 온라인 웹사이트)

* TIP : 대부분의 콘텐츠는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지만, 일부는 영어로 제공되기도 한다.

기관/단체명	ELSE Edizioni (엘세 에디치오니)			
	유형	스튜디오 및 출판사	장르	
	운영주체	자체운영		
	소재지	로마 Via di Torpignattara, 142	설립년도	2010년
	기관현황			
	홈페이지	https://www.elsedizioni.com/		

기관
및
단체

엘세 에디치오니(ELSE Edizioni)는 2010년에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모여 설립한 핸드메이드 실크스크린 작업실이다. 이 곳에는 수작업으로 특별 한정판의 그림책을 만든

다.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재료들은 모두 친환경이다.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창의적이고도 실험적인 작업이 돋보인다. 엘세 에디치오니에서 제작되는 작업은 단순한 그래픽을 넘는 예술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실크스크린을 비롯하여 책 제작을 체험해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최된다.

출판되는 책은 보통 여러 작가들의 작업을 한데 모으는 형태인데, 나무, 동물, 가족 등 보편적인 주제에 대한 다양한 문화 및 관점에서의 고찰이 흥미롭다.



(출처: ELSE Edizioni 홈페이지)

* TIP : 이탈리아 대표 그림책 전문 출판사 Orecchio Acerbo(오레키오 아체르보)의 자매 출판사이다.

공간

공간명	엑스 도가나 (Ex Dogana)		
유형	문화공간	장르	복합
운영주체	몬도모스트레 스키라 (Mondomostre Skira)		
소재지	로마 Viale dello Scalo San Lorenzo, 10	설립년도	2015년
공간현황	전시, 공연, 이벤트 등 다목적으로 활용되는 실내 및 야외 공간, 플라네타륨 (약 7,000평)		
홈페이지	http://www.exdogana.com/		

■ 소개

산업화가 한창이던 1920년대에 지어진 철도 세관 공간으로 건물들을 비롯하여 야외 공간까지 약 7,000평에 이르러 단연 최고의 규모를 자랑한다. 수 년 동안 버려졌다가 2015년 8월에 대규모 개조 없이 기존 설립 목적을 최대한 살리며 시각 및 음악예술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변모하며 동시에 도시 재생의 아이콘으로 부상하였다. 전시, 공연, 영화상영, 소셜 이벤트, 마켓 등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열린다. 저녁에는 클럽 또한 열려 밤문화를 즐기는 이들 사이에 인기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엑스 도가나는 장소, 역사, 규모 등으로 인해 처음부터 많은 화제가 되었으나 운영 주체가 계속해서 바뀐 탓에 행사들의 준비 및 운영 미숙 등으로 비판과 아쉬움을 사기도 했다. 작년부터 국제 전시 및 이벤트 기획사 몬도모스트레 스키라에 의해 운영되기 시작했는데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공간으로서 제대로 자리를 잘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행사 모습 (출처: Romeing)



야외 공간 (출처: Ex Dogana)

* TIP : 행사 정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알 수 있다.

공간명	팔라초 델레 에스포시치오니 (Palazzo delle Esposizioni)		
유형	문화공간	장르	복합
운영주체	아지엔다 스페찰레 팔라엑스포 (Azienda Speciale Palaexpo)		
소재지	로마 Via Nazionale, 194	설립년도	1883
공간현황	10,288m ² (총 3개층)		
홈페이지	https://www.palazzoesposizione.it/		

공간

■ 소개

팔라초 델레 에스포시치오니는 로마 중심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문화공간이다. 총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0,000m²(3,000평)가 넘는 대규모 공간이다. 2개의 층에 펼쳐진 약900평 규모의 전시 공간과 더불어 영화상영관(136석), 강당(88명 수용), 포럼(다목적홀), 아틀리에(아트 워크숍 공간), 카페, 레스토랑, 그리고 북샵이 있다.

팔라초 델레 에스포시치오니는 로마가 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던 시기, 온전히 순수예술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피오 피아첸티니(Pio Piacentini)가 설계하여 1883년 처음 문을 열었다. 이후, 정기적으로 과거 및 동시대의 예술을 기록하고 전시하기는 했으나 본래 미술관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설립된 공간은 아니었다. 이에 보다 전시에 적합하고 건축적인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1930년대와 80년대에 두 차례에 걸쳐 복원 공사가 이루어졌다.

1998년에는 운영·행정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책임운영기관 아지엔다 스페찰레 팔라엑스포가 설립되어 팔라초 델레 에스포시치오니의 독립성이 강화되었으며 문화예술기관으로써 더욱 활발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2003년부터 약 5년간 또 한 차례의 복원공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공간의 기능 및 기술적인 부분을 향상 시키고 기존 건축에 현대적인 요소들을 추가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통해 현재의 강당, 영화관, 다목적 프로젝트홀 등과 같은 문화시설과 카페, 레스토랑, 서점 등과 같은 편의시설이 더해졌다.

팔라초 델레 에스포시치오니는 전시와 더불어 연극, 무용, 음악, 영화, 건축, 사진을 비롯한 다양한 예술 장르를 아우르는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하며, 복합예술, 과학, 인문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 간의 소통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오고 있다.

또한, 연구와 교육 활동도 활발히 펼쳐지며,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젊은 작가, 건축가, 그래픽 디자이너 등과 연계하여 혁신적이고도 실험적인 방식으로 어린이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이 동시대예술을 더욱 가까이에서 접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아틀리에'와 '포럼' 공간에서 아트 워크숍을 운영한다.

어린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특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돋보이는 부분은 '예술 책장'(Scaffale d'arte, The Art Bookshelf)이다. '예술 책장'은 2007년에 국제 어린이 예술 서적을 위해 특별히 설립된 어린이 책 전문 도서관으로 전 세계 다양한 (쉽게 접하기 어려운 희소성 높은) 책 2,000여권을 소장하고 있으며, 책, 특히 그림책,을 교육과 명상의 목적으로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좌) 외관 (우) 전시장 전경



Scaffale d'arte (출처: Palazzo delle esposizioni 홈페이지)

* TIP : 그림책 및 일러스트레이션 관련 전시 및 행사 그리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진행해오고 있으며, 문화 간 공유 및 소통에 기반한 사업 또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 교류를 추진해보면 좋을 것 같다. 올해 10월에는 일본대사관 및 IBBY Japan(국제 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 일본 지부)과 함께 일본 그림책 전시 《Japan in Colour》 및 연계 행사 진행 예정이다.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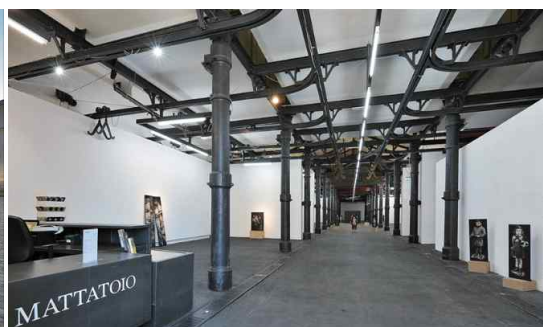
공간명	마타토이오 (Mattatoio)		
유형	문화공간	장르	복합
운영주체	아지엔다 스페찰레 팔라엑스포 (Azienda Speciale Palaexpo)		
소재지	로마 Piazza Orazio Giustiniani, 4	설립년도	2018
공간현황	전시, 공연, 이벤트 등 다목적으로 활용되는 실내 및 야외 공간 (약 3,000평)		
홈페이지	https://www.mattatoioroma.it/		

■ 소개

1888년에서 1891사이에 지어졌던 남아있는 건물들로 이루어진 복합문화공간이다. 도축장으로 사용되었던 시설로, 19세기 로마 근대화·산업화를 상징하는 장소이다. 최근에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고 문화적 활기가 되살아나고 있는 티베르(Tiber)강변의 테스타치오(Testaccio)에 위치하고 있다.

2003년부터 두 개의 건물이 로마 현대미술관(MACRO, Museo di Arte Contemporanea)의 분관으로 사용되다가 복원공사 과정을 거쳐 현재의 마타토이오 프로젝트로 거듭났다. 지금은 팔라초 델레 에스포지치오니(Palazzo delle Esposizioni)와 함께 아지엔다 스페찰레 팔라엑스포 (Azienda Speciale Palaexpo)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크게는 전시를 선보이는 Padiglioni 9A와 9B 그리고 주로 공연 및 행사를 진행하는 La Pelanda가 있다.

전시로는 다양한 예술 언어가 함께 어우러지는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을 함께 선보이고 있으며, 공연 분야 같은 경우에는 Short Theatre, Romaeuropa Festival과 같은 축제와 연계하여 진행하기도 한다. 올해부터 팔라엑스포에 의해 운영되는 만큼, 현대예술 및 국제문화예술교류의 거점으로 발돋움하기를 기대케 하는 곳이다.



(좌) 외관 (우) 전시장 전경 (출처: Mattatoio 홈페이지)

* TIP : 행사 정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알 수 있다.

공간	공간명	첸토스토리에 (Centostorie)		
	유형	서점	장르	그림책

운영주체	자체운영		
소재지	로마 Via delle Rose, 24/26	설립년도	2007
공간현황 홈페이지	어린이 전문 서점 http://www.centostorie.it/		

■ 소개

로마시의 부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을 받아 여성 3인이 모여 2007년 9월에 문을 연 1세대 어린이 전문 서점이다. 지난 10년간 0세부터 10세까지의 어린이를 비롯한 가족들이 모여 교류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펼쳐왔다. 서점과 더불어 Romaperbambini(로마시내 어린이 관련 기관, 행사 정보 포털)과 Cleio (이탈리아 어린이 독립 서점 및 기관 연합)를 기획·운영해오고 있다. 현재 연계된 서점은 전국적으로 65개이다.

로마 중심가에서 차로 약 2-30분 정도 떨어진 첸토첼레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공간 자체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지난 10년간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넓은 고객층을 형성하고 있다. 그림책 관련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자체 기획 및 운영한다. 그림책 스토리텔링과 젊은 그림책 작가 초청 등 다양한 행사를 꾸준히 개최한다.



내부 행사 진행 모습 (출처: Centostorie 홈페이지)

* TIP : 행사 정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알 수 있다.

공간

공간명	로마현대미술관 (MACRO, Museo di Arte Contemporanea)		
유형	문화공간	장르	현대예술
운영주체	아지엔다 스페찰레 팔라엑스포 (Azienda Speciale Palaexpo)		
소재지	로마 Via Nizza, 138	설립년도	1999
공간현황	전시, 공연, 이벤트 등 다목적으로 활용되는 실내 및 야외 공간 (약 4,200평)		
홈페이지	https://www.museomacro.it		

■ 소개

1999년에 설립된 로마현대미술관(MACRO, Museo di Arte Contemporanea)은 1971년까지 맥주공장으로 사용되던 공간을 개조하였다. 2003년부터는 테스타치오(Testaccio) 지역의 옛 도축장이었던 공간이 분관(MACRO Testaccio)으로 함께 운영되어왔으나, 올해부터는 로마현대미술관이 아닌 별도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Via Nizza

에 위치한 본관(MACRO Nizza)은 2016년 7월부터 이어진 관장 공석 상태의 여파로, 올해 초 1월부터 5월말까지 개최한 핑크 플로이드 (Pink Floyd) 전시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거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았는데, 이 전시마저 장소가 부적절하다고 의견이 강했으며, 로마 미술계로부터 많은 비판을 샀다.

이 같은 풍파를 뒤로하고, 오랜 공백 기간 뒤에 로마현대미술관이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왔다. Asilo(아실로, 뜻: 피난처)라는 제목의 실험적인 프로젝트이다. 전 로마 MAAM Street Art Museum 관장을 역임했던 조르조 데 피니스(Giorgio De Finis)가 예술감독을 맡은 이 프로젝트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데 피니스는 전형적인 전시 방식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미술관(living museum)”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프로젝트 기간 동안 250명의 현대작가가 작업을 하고, 공연을 선보이고 관객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400개의 비디오 작품 제작, 1,000개의 강연, 60번의 토요 저녁 콘서트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많은 국외 작가들이 참여를 하는 대규모 기획이 될 예정이다. MACRO Asilo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15개월 동안 관람료는 무료이다.



MACRO Nizza 전시 전경 (출처: MACRO 홈페이지)



MACRO Asilo 오픈 당일 모습 (출처: 안소연)

* TIP : 15개월간 매일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미술관 휴관일인 월요일 제외) 관련 소식들은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을 통해 알 수 있다.

공간	공간명	팔라초 메를루아나 (Palazzo Merluana)		
	유형	문화공간	장르	근대예술
	운영주체	CoopCulture		
	소재지	로마	설립년도	2018

	Via Merluana, 121	
공간현황	상설컬렉션 작품 수-약 90점, 1,800m ² (총 4개층)	
홈페이지	http://www.palazzomerulana.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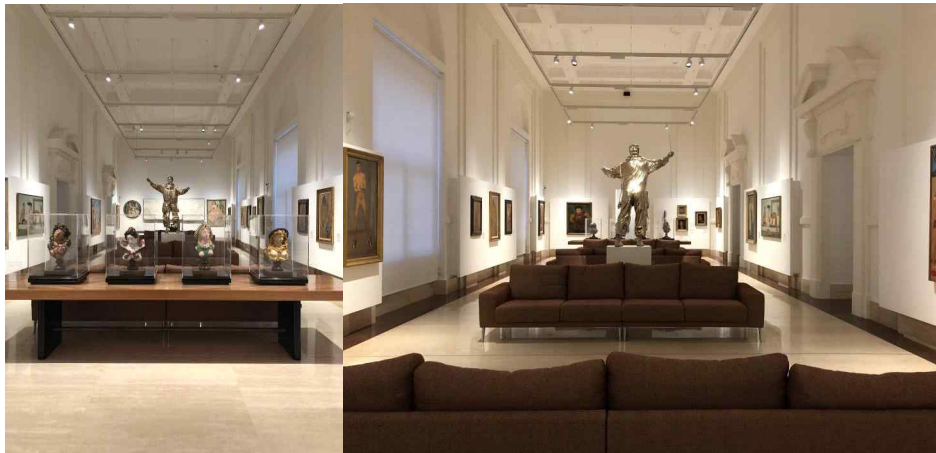
■ 소개

팔라초 메를루아나(Palazzo Merluana) 미술관은 2014년에 설립된 엘레나와 클라우디오 체라시 재단(Elena and Claudio Cerasi Foundation)의 근현대미술 컬렉션을 기반으로 문을 열었다.

재단 창립자 엘레나와 클라우디오 체라시는 오랫동안 버려졌던 공간을 보전·복원하여 로마 시민들에게 다시 선사하기를 원했고, 이에 5년이 넘는 대규모 재건축을 통해 전 보건부의 건물이 팔라초 메를루아나로 재탄생하였다.

팔라초 메를루아나의 컬렉션은 20세기 이탈리아 근대작가들의 작품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그 중 많은 부분이 로마 미술학교 작가들의 작품이라 창립자들이 로마 지역의 문화에 얼마나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었는지 엿볼 수 있다.

전시와 더불어 음악 공연 및 학교 연계프로그램, 어린이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 5월에 개관하여 아직까지는 인지도가 높지 않고 기반이 많이 다져지지 않은 듯 하나, 작지만 알찬 컬렉션 및 공간 구성 등 매력적인 곳임은 분명하다.



전시 전경 (출처: 안소연)

* TIP : 올해 새로이 문을 연 만큼 교류협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축제 및 행사	축제/행사명	리졸라 델 치네마 (L'isola del cinema)		
	유형	축제	장르	영화, 음악, 문학, 시, 시각예술
	운영주체	조직위원회		
	개최시기	매년 6월-9월	시작년도	1995년
	개최도시	로마		
	참가규모	82일간의 영화 상영, 토크, 공연, 전시 등		
	홈페이지	http://www.isoladiroma.it/		

■ 소개

한낮의 뜨거운 열기가 가시고 해가 저물 때 즈음, 이탈리아에서는 한여름밤의 무더위

를 식히고 낭만을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들이 펼쳐진다. 야외에서 공연 또는 영화를 즐기는 일은 이탈리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름 풍경이다. 로마 곳곳에서도 6월부터 9월 초까지 크고 작은 축제가 열리는데 그 중 하나가 올해로 24회를 맞이한 '리졸라 델 치네마'이다. 한국어로는 '영화의 섬'로 번역되는 이 영화제는 로마를 관통하는 테베레 강가(Trastevere)의 티베리나 섬(Isola Tiberina)에서 열린다.

이탈리아 거장 및 신예 감독들의 작품을 비롯하여 세계 영화 등을 함께 소개한다. 또한 영화 상영과 더불어 영화를 매개로 음악, 문학, 정치, 사회, 연극, 시 등 다양한 관심사를 아우르는 행사들이 함께 진행된다. 영화인들과의 만남, 공연, 전시회, 주제가 있는 토론회 등 다양한 문화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축제이다.



(상) 올해 홍보물 (출처: 리졸라 델 치네마 홈페이지)
(하) 지난 현장 스케치 (출처: Zero.eu)

* TIP : 올해 세계영화 섹션에서는 이스라엘, 호주 그리고 일본 작품에 집중 조명을 한다고 한다. 이런 큰 축제의 장을 활용해 한국의 영화 및 문화를 소개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축제 및 행사	축제/행사명	비데오치타 (Videocittà)		
	유형	문화예술축제	장르	복합
	운영주체			
	개최시기	10월 19-28일	시작년도	2018
	개최도시	로마		
	참가규모	패션, 비디오아트, 음악 등 다양한 예술 분야를 아우르는 행사 114건		
	홈페이지	http://www.videocitta.com		

■ 소개

열흘간 50여개의 장소에서 시각예술, 패션, 가상현실, 웹, 비디오아트, 음악, TV 등 다양

한 분야를 아우르는 행사가 100건 넘게 개최되었다. 제1회 비디오 아트 주간인 비디오 치타 (Videocittà, 뜻: 비디오도시), 1950년대부터 영화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은 로마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예술과 움직이는 이미지의 만남을 상징하는 행사가 도시 곳곳에서 열렸다.

이탈리아 유명 패션 브랜드 펜디(Fendi), 구찌(Gucci), 그리고 불가리(Bulgari)를 비롯하여 박물관, 미술관, 재단, 비영리 공간, 학교, 갤러리, 고대 유적지 등 다양한 기관 및 장소가 함께 참여하여 제7의 예술이라고 불리는 비디오 아트의 영역을 더욱 확장하였다.

이 축제의 일환으로 국립로마현대미술관(MAXXI, Museo nazionale delle arti del XXI secolo)에서는 백남준 기념 상영회가 개최되었다..



판테온 비디오매핑 행사 모습 (출처: Artribune)



개막식 행사 모습 (출처: Artribune)

* TIP : 공식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을 통해 자세한 프로그램 및 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 올해를 기점으로 연중행사로 기획될 가능성이 보인다.

축제 및 행사	축제/행사명	오 더 프로젝트 (O The Project)		
	유형	문화예술축제	장르	복합
	운영주체	엘렉타(Electa) 출판사, 로마 국립박물관(Museo Nazionale Romano)		
	개최시기	9월 14일-12월 16일	시작년도	2018
	개최도시	로마		

참가규모	음악, 무용, 시각예술 등 다양한 예술 분야 행사 36건
홈페이지	http://www.o-termediodioleziano.com/en/

■ 소개

‘로마에는 세계에서 손에 꼽히게 아름답고 유서 깊은 명소들이 많지만 새롭고 현대적인 감각의 문화 창출은 부족하다’ 이는 꽤나 많은 로마 시민, 더 나아가서 이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의견일 것이다. 로마국립미술관(Museo Nazionale Romano) 중 하나인 고대 로마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욕장(Terme di Diocleziano)도 도심 중앙에 자리하고 있는 대표 문화유산인데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음에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사왔다.

이러한 아쉬움을 달래주기라도 하듯, 9월 14일부터 엘렉타(Electa) 출판사와 로마국립미술관의 협업으로 이 아름다운 고대유적지가 무용, 시각미술, 음악 (주로 일렉트로닉) 등 다양한 문화행사들로 채워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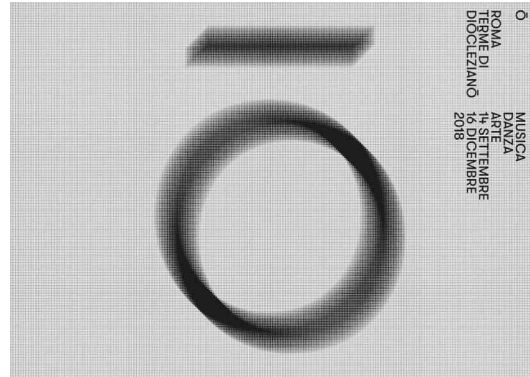
이 프로젝트 제목인 오(Ō)는 기쁨, 고통, 갈망, 놀라움 등의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 감탄사, 세포와 단자, 원, 고리, 루프 등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한 때 욕장을 가득 채웠던 산소와 물을 의미하기도 한다. ‘오’는 서로 대립되는 것의 결합이며, 포용하는 두 명의 인간이며, 태양과 달의 모양, 신성함의 상징, 신들의 경로, 영원한 시간, 의식 및 신화의 흔적이기도 하다. ‘오’는 계절의 순환이며 행성들 간의 조화에 리듬을 불어넣기도 한다. ‘오’는 눈이자 입이고 음표이며 춤이다. 도시의 중심이며 단순하고도 복잡하고, 완벽하고도 기본적인 양식이다.

‘오 더 프로젝트’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욕장을 다시금 사람들로 가득 채우고, 그곳에 생명력을 불어넣고자 기획되었다. 과거에 그랬듯, 모두에게 개방된 모임과 번영의 장소가 되도록 말이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물 대신 음악이 흐르고, 증기 대신 사람들이 공간들을 채울 것이다.

‘오 더 프로젝트’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욕장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간 곳곳을 누비는 관객들이 위안, 불안 등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 경험을 제공한다. 축제기간 동안 40여명의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고대 공간과 대화를 나누며, 이 공간을 위해 특별히 구상하고 제작한 새로운 작품 및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관객들에게는 욕장의 흙, 회랑 그리고 천문관 등의 매일 매일 새로운 공간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관객들이 오(Ō)의 다양한 의미와 감정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진다. 음악은 테크노부터 일렉트로닉, 아프로(Afro), 인디팝(indie pop), 네오포크(neofolk), 답카(Dabka), 댄스, 클래식, 댁(dub) 등 장르가 다양하며, 댄스도 현대무용부터 아크로바틱 및 힙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9월 14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한 달간 ‘실험’ ‘개방’ ‘교류’ ‘배움’ 이 네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한 공연들이 펼쳐졌으며 10월 21일부터는 매주 일요일에 디자인, 패션 등 다양한 시각미술 장르의 토크,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으로 관객들과의 만남이 진행되고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이나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고 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욕장(Terme di Diocleziano) 모습 (좌), 공식 포스터 (우)
(출처: 0 The Project 홈페이지)



공연 모습 (출처: 온라인 매거진 ZERO 홈페이지)

* TIP : 올해 관객들의 호응이 좋아 앞으로 지속적인 프로젝트로 추진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공식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을 통해 자세한 프로그램 및 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

축제 및 행사

축제/행사명	로마에우로파 페스티벌 (Romaeuropa Festival)		
유형	문화예술축제	장르	복합
운영주체	로마에우로파 재단 (Fondazione Romaeuropa)		
개최시기	매년 9월-11월	시작년도	1986년
개최도시	로마		
참가규모	전 세계 아티스트 300여명 참가, 로마 26개 장소에서 행사 개최		
홈페이지	https://romaeuropa.net/		

올해로 서른세 번째 맞이하는 로마에우로파 페스티벌(Romaeuropa Festival)은 현대 연극, 무용, 음악, 퍼포먼스, 디지털아트, 영화 등이 한데 어우러지는 예술축제이다. '로마에우로파'라는 이름과는 달리, 이탈리아 및 유럽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다양한 문화권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행사이기도 하다. 올해의 경우, 4개 대륙 24개 나라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했다.

일반적으로 매해 9월부터 11월까지 약 두 달간 남녀노소 다양한 대중을 위한 행사들이 개최된다. 극장, 미술관, 박물관, 복합문화공간 등 로마 시내 곳곳 여러 기관 및 장소와 협력하여 진행한다. 현대예술을 심도 있게 고찰하는 축제로, 실험적인 콘텐츠 또

한 많이 선보인다.



2018 오프닝 공연 (출처: Artribune)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이벤트도 다양하게 선보이는 점 또한 흥미롭다.



2018 어린이 공연 (출처: 안소연)

* TIP : 아직까지는 한국 아티스트를 소개한 적이 없으나 한국과의 교류에 관심 있어 하여, 추후에 개최될 에디션에 협력을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다.

축제
및
행사

축제/행사명	피우 리브리 피우 리베리 (Più libri Più liberi)		
유형	도서전	장르	복합
운영주체	도서전 조직위원회		
개최시기	12월	시작년도	2002년
개최도시	로마		
참가규모	500여개의 중소출판사		
홈페이지	https://plpl.it/		

피우 리브리 피우 리베리 (Più libri Più liberi, 더 많은 책, 더 많은 자유)는 이탈리아 독립 중소출판사들을 소개하는 도서전으로 매년 12월에 개최된다.

이 도서전은 대규모 출판사들에 가려 빛을 보지 못하는 작은 규모 출판사들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2년에 처음 시작되었다. 도서 전시 및 판매 외에도 도서전 기간 5일간 약 600건의 행사가 개최된다. 작가와의 만남, 워크숍, 음악 공연, 스토리텔링 등 다양하다. 책 작가뿐만 아니라 철학자, 음악가, 작곡가, 비평가, 기자, 시나리오 작가, 과학자, 일러스트레이터, 만화가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이다. 크게는 일반 성인, 전문가 그리고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행사로 나뉜다.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이벤트는 로마중앙시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총괄 운영한다.

2017년부터는 로마 컨벤션센터 라 누볼라(La Nuvola)에서 개최되고 있다.



(출처: Più libri Più liberi 홈페이지)

인물명	크리스티아노 레오네 (Cristiano Leone)	소속	로마 주재 프랑스 아카데미 (Accademia di Francia di Villa Medici)
장르	복합	연락처	leonecristiano@gmail.co m
주요 이력	2018 오 더 프로젝트 (O The Project) 예술감독 로마 주재 프랑스 아카데미 빌라 메디치 문화기획 및 홍보 담당관		

인물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태어나 미학을 공부하였으며 중세 문헌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벨기에와 프랑스를 오가며 언어학과 문헌학을 가르쳤으며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문화 정책 관련 프로젝트들을 진행하였다. 현재는 로마 소재 프랑스 예술 아카데미의 문화행사기획 담당관으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여 선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 작가이자

연기자이며 감독인 무리엘 마예트-홀츠(Muriel Mayette-Holtz)와 함께 개최하는 '빌라 (메디치)의 목요일' (i Giovedì della Villa)가 돋보인다. 매주 목요일 저녁에 진행되는 이 행사는 오늘날의 예술과 창의성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고자 하는 시도이다.

레오네는 최근 로마의 중요한 고고한 유적 가운데 하나이자 로마국립미술관(Museo Nazionale Romano) 중 하나인 고대 로마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욕장(Terme di Diocleziano)에서 개최되고 있는 야심찬 프로젝트의 예술감독으로 참여했다.

음악, 무용, 시각미술 등 다양한 예술 장르를 아우르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그는 역사 문화적인 유산과 모든 유형의 현대예술이 함께 모여 한데 어우러지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했다고 한다. 이러한 기획은 로마 고대 유적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34세의 이 젊은 기획가의 행보가 더욱 더 기대된다.

* TIP : 실험적이고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 기획가로, 협력을 추진해보아도 흥미로울 것 같다.